

19세기 중국 사행가사에 반영된 기행체험과 이국취향

—〈서행록〉과 〈연행가〉를 중심으로

유정선*

—<차례>—

1. 문제의 제기
2. 작품 구성과 연행의 노정
3. 기행 체험 반영의 방식
4. 청을 향한 이중적 시선
5. 19세기 중국 사행가사의 성격과 그 의의
6.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19세기 중국 사행가사 <서행록>과 <연행가>를 대상으로, 19세기 연행의 시대적 맥락 속에서 가사에 나타난 기행체험의 의미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김지수의 <서행록>과 홍순학의 <연행가>는 이 시기 가장 인기를 끈 계열의 작품들로서 이들 작품들을 통해서 19세기 중국 사행가사의 보편적인 기행의식을 고찰하였다.

두 작품의 구성상 특징은 북경에서의 견문이 확장되어 장편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기행체험 반영의 방식으로는 공적인 사행임무를 띠고 있으면서도 개인적 관심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흥미추구의 태도를 보여준다. 이에 북경의 이색적인 풍물과 장대한 볼거리, 민간풍속의 견문체험을 다룬다. 이 때 청국의 풍물과 문화가 무엇보다 일상성 속에 놓인 시각적 풍취의 대상으로 재현된다. 이는 성대함과 화려함을 지시하는 대국의 표상들로서, 천자의 위와 치세의 안정성을 상징하는 궁궐과 성대한 장시의 풍경으로 대표된다. 따라서 가사에 나타난 대국의 표상은 청에 유동하는 일상적 소비문화의 측면에서 구축된 것으로서, 문화적 심급의 차원에서 구축된 것은 아니다.

* 명지대 강사

이는 전통적인 유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근간으로 한다. 청국에서 느낀 물질적 번성은 전래 유학의 정신적 연원에서 끌어올린 것으로 이해된다. 그곳 중국 지식인들과의 교류에서도 만인이 아닌 한인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따라서 연행을 통해 청조 문물의 흥성에 대해 실감하면서도 이것은 청나라 학문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주제어 19세기, 사행가사, 일상문화, 대국, 유학

1. 문제의 제기

19세기에 중국으로의 사행 길은 예전에도 그랬듯이 선택된 사람만이 오를 수 있는 길이였다. 청국으로의 사행은 고단하고 길며 일정한 책무를 지닌 여정이었지만, 풍요로운 대국의 풍문은 당대 지식인들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 시기에는 ‘오랑캐 나라로의 사행’이 갖는 긴장감이 이완되는 한편으로, 한쪽에서는 여전히 청으로의 연행을 배척하는 경향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중국 사행가사로서 19세기 사행가사가 주목되는 이유는, 처음으로 청국으로의 사행 체험을 본격적으로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사행가사의 통시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17세기 말에 3편의 단행 가사들이 전할 뿐, 한참을 건너뛰어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작품들이 보고된다. 18세기의 공백을 거쳐 19세기 지어진 3편의 중국 사행가사는 외형상 작품의 정조와 길이만 대비해 보아도 17세기 말 작품과의 낙차가 크다. 17세기 말 작품들은 단편에 머문 반면, 19세기에는 대장편화 하고 있는데, 이 장편화는 무엇보다도 청국에서의 견문체험을 비중 있게 다루게 된 결과이다. 즉 가사장르에서는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청국에서의 견문 체험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진다.

이는 한문연행록의 경우 18세기에 가장 활발하게 지어졌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의구심을 자아낸다. 이와 같은 작품 양상들이 보여주는 ‘시간적 상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점과 관련하여 작품 속에 나타난 기행체험의 다양한 양상들과 거기에 투영된 기행의식이 주목된다.

그간 19세기 중국 사행가사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다음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곧 19세기 사행가사 전반에 관한 연구, 19세기 사행가사 중 중국 사행을 소재로 한 연행가사 전반에 관한 연구 및 개개 작품에 대한 연구인 개별 작품론이 있다. 먼저 19세기 사행가사 전반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의명분론의 약화 및 공식적 사절의식의 약화를 이 시기 사행가사의 특징으로 보았다.¹⁾ 19세기 중국 사행가사 전반에 대한 연구에서는 19세기 중국 사행가사 전반에 대한 개괄적 소개와 함께 작품에 반영된 대외인식에 대하여 논하고, 사대의식이 거의 보이지 않고 합리적 비판의식이 나타난다고 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²⁾

다음으로 개별 작품론으로는 홍순학의 <연행가>가 집중 조명되었으며, 작품 전반에 나타난 기행체험을 살펴보고 대외인식을 밝히는 연구들이다. <연행가>를 <일동장유가>와 대비적으로 고찰한 연구에서는 <연행가>에 나타난 해외체험과 세계관의 의의를 밝히고, 전통적인 화이관을 극복했다고 보았다.³⁾

1) 유정선, 『18,19세기 기행가사 연구』, 역락, 2007, pp.131-142.

2) 임기중은 사대의식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청이 탐구적 대상이 되고 있으며, 비판의식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청인들의 대조선의식도 대등한 상대국으로 본다고 하였다. 임기중, 『연행가사 연구』, 아세아 문화사, 2001, pp.80-81. 그런데 여기서의 논의는 사행가사 작가들이 만인과 한인의 뚜렷한 변별의식을 지니고 있었던 점을 간과하고, 사행길에서 만난 중국인들을 모두 청인으로 해석하여 단선적으로 논의한 측면이 있다.

3) 조규익은 명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와 청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척을 지양하고 전통적인 화이관을 극복했다고 본다. 조규익, 「사행가사의 해외체험과 세계관:<일동장유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는 <연행가>를 비롯한 19세기 중국 사행가사 작품들에 대해 전대의 보수적인 화이관을 일정 부분 극복했다고 평가한다. 그렇지만 그 극복의 의미는 좀더 천착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홍순학의 <연행가>는 경탄과 폄시 사이에서 부유하면서 관념과 현실 사이의 서성거림을 보여준다고 보아, 오랑캐로서의 폄시의 태도와 편리한 문물에 대한 긍정적인 기술이 공존한다고 본 연구가 있다.⁴⁾ 여기에서는 청에 대해 오랑캐로서의 폄시, 명나라에 대한 일방적인 선망을 가지면서도 18세기 북학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청나라 문물에 대한 수용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⁵⁾고 하였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18세기 중반 이후 활발하게 창작된 북학파의 한문연행록에 비해, 18세기의 공백기를 거쳐 뒤늦게 19세기에 이르러 청국 견문 체험을 문학화한 가사의 경우, 그 시기의 뒤늦음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과연 선진적 의식을 지녔던 북학파처럼 '선진성'이나 '편리함'이라는 이용후생학적 차원에서 청의 문물에 관심을 가졌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중국 사행가사의 통시적 흐름 속에서 19세기 중국 사행가사의 문학적 성격을 자리매김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이를 위해 19세기에 행해진 연행의 시대적 맥락에 비추어, 19세기 중국 사행가사 작품들에 투영된 기행의식은 보다 세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현재 전하는 19세기 중국 사행가사 총 작품의 수는 김지수 <서행록>(1828)·홍순학 <연행가>(1866)·유인목 <북행가>(1866)까지 모두 3편이다. 이 중 <북행가>는 규방가사로 향유되어 왔으며, 작품 내용도 개인

가>와 <병인연행가>」, 『국문 사행록의 미학』, 역락, 2004, pp.239-240.

4) 김풍기, 「<연행가>의 교육적 讀法」, 『국어교육학 연구』 12, 국어교육학회, 2001, p.221.

5) 김풍기, 위의 논문, pp.229-230.

적인 애정사를 대폭 그려낸 점에서 나머지 두 편과 이질적이다. 이에 본고는 일단 19세기 중국 사행가사의 보편적인 경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가장 인기를 끈 작품 계열인 <서행록>과 <연행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서행록>과 <연행가>는 영향관계가 추정될 만큼 내용상 유사점을 많이 지니고 있다.⁶⁾ 홍순학의 <연행가>는 다수의 이본이 전하는 복수의 텍스트로 존재할 만큼 관심을 끌었는데, 이 <연행가>에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추정되는 작품이 <서행록>이다. 이 점에서 이들 작품들을 통해서 19세기 중국 사행가사의 보편적인 기행의식을 살펴볼 수 있으리라고 보고, 두 작품을 대상으로 중국 사행 체험이 갖는 의미를 살피고자 한다.

2. 작품 구성과 연행의 노정

가장 이른 시기에 나온 작품은 김지수의 <서행록>(1828)이다. 김지수(金芝叟)의 지수(芝叟)는 본명이라기보다 자(字)로 보이며, 기타 그의 신분은 밝혀져 있지 않다.⁷⁾ 작품 본문의 내용을 통해 추정해 보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경화사족으로서, 출사하지 않은 한사로 이번 사행에는 수행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연행가>(1866)의 홍순학은 당대 유력 가문인 노론계 남양 홍씨 출신으로, 25세의 젊은 나이에 서장관으로 임명되어 연행에 참여한다.

이러한 신분상 차이로 인해 사행의 도정 속에서 표출되는 의식은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서행록>의 경우 한사로서 행운이랄 수 있는 사행의 일원이 된 데에서 오는 뿌듯함을 드러낸다.⁸⁾ 반면 <연행가>에는 일

6) 두 작품은 작품의 양과 구성방법, 가사를 쓴 동기와 견문한 바를 왕환 도중에 매일 써나갔다는 점이 동일하다. 임기중, 앞의 책, p.65.

7) 임기중, 『西行錄 해설 기행문학사의 신기원』, 『문예중앙』가을호, 중앙일보사, 1978.

찍 관계로 나아가 서장관이라는 중임을 맡게 된 자부심과 득의만만함이 깔려 있다.⁹⁾ 이런 개인적 처지에 따른 의식의 차이가 곳곳에서 표출되지만 전체 구성의 큰 틀은 유사하다.

두 작품의 구성을 보면 전체 구성의 면에서 거의 유사하며, 개인적 관심사의 변화에 따른 세목별 비중의 측면에서 차이를 갖는다. 사행가사의 작품 구성은 크게 <사행에 오르게 되는 계기와 과정-목적지를 향한 노정-목적지 도착-회정-여정의 마무리>로 나뉜다. 이 가운데 <중국에 입국하여 북경을 향하는 노정-목적지 북경에 도착해서의 견문>이 중심 내용이 되며, 그 중에서도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은 목적지인 ‘북경에서의 견문’을 다룬 부분이다.

먼저 도입부인 ‘사행에 오르게 된 과정’에서는 사행의 성격과 사절로 뽑히게 된 과정, 전별연 등이 소개된다. 여기에서는 친지 및 가족들과 이별하는 아쉬움을 표출하고 있다.

이어 목적지를 향한 노정은 국경을 경계로 ‘국내 노정/국의 노정’으로 구분된다. 국경을 넘기 전 국내 노정에서는 의주의 압록강 국경을 향한 노정을 따라가면서 곳곳의 유적지에 얽힌 역사에 대한 회고, 관가에서 대접하는 연회 등이 순차적으로 소개된다. 이 때의 도정에서 시선을 멈추고 감회를 표출하는 지역은 두 작품에서 거의 일치한다. 고려의 옛 서울 송

8) “왕니인 여귀오면 예다가 제명하니 조선서 온는스름 모도다 기록하여 그중의 친흔스름 시로이 반갑도다 니역시 제명코져 망계를 니러하니”에서 보듯이, 의무려산에서 자신의 사행을 알리기 위한 제명을 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바위에 오르고 있다. 또한 작품의 끝 부분에서 사행을 마무리하며 “어와 동인들아 중원구경 하였는가 숨척칠십 먼먼길의 귀경하니 몇몇친고”라고 하여 중국에 다녀온 뿌듯함을 드러낸다. 김지수, <서행록>, 임기중 편, 『역대가사문학전집』, 40권, 아세아문화사, 1998.

9) “늑인교의 높히 안져 디전비 압세우고 천천이 드러가며” · “장호도다 저 스소야 춘추가 얼마신지 저러듯 소년서장 이 근리의 처음일다” <연행가>, 임기중, 『연행가사연구』, 아세아 문화사, 2001, 수록.

도에서 정몽주의 충절을 기리기도 하고, 충수참에서 명나라 사신 주지번의 사적과 평양 기자의 유적에 대한 회고가 이어진다.

이어 국경을 넘어서 펼쳐지는 국외노정은 본격적으로 사행길이 시작되는 부분이다. 주요 노정은 <요동-반산-의무려산-고죽군 사당-이제묘-북진묘-강녀묘-이원의 옛터-봉황성-요동성-심양-산해관-통주>로 이어진다. 이 때 처음 의주의 압록강 국경을 넘어 중국 땅에 접어들면 막막한 요동벌과 맞닥뜨리게 된다.

이로부터 이어지는 여정 속에서는 이미 학습과 풍문에 의한 추체험을 통해서 익숙해진 역사고적들과 마주한다. 광활한 요동벌을 직접 목도하는 데에서 오는 감격을 비롯하여 반산과 의무려산의 장대한 경관, 백이숙제의 고사에 얽힌 이제묘, 이원의 옛터 등 역사고적들에 시선을 고정한다. 이 경관과 고적들은 역사적 전고에 얽힌 곳들이어서 그 지명을 호명하는 것으로도 감회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 중국 국경에서 북경에 이르는 여정에는 명과 청의 전적지들이 많이 남아 있다. 상대적으로 <연행가>에서는 대명의 전적지들을 지나가며 패망을 부추긴 역신들에게 분노하기도 하면서 명의 패망을 안타까워한다.¹⁰⁾ 청과 우리나라의 역사가 얽힌 곳들에서는 각별한 감회에 젖기도 하여, 청석령을 넘어가며 예전에 이곳을 넘었던 효종의 서글픈 노래 가락을 떠올리기도 한다.¹¹⁾

또한 이 노정은 변방에서 처음 ‘호인’의 외형과 그들의 풍속을 목격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의복이나 집의 모양, 아이 기르는 법, 남녀의 외모, 옷감

10) 대릉하에 이르러서는 “슬푸다 더명의 유장군 수십만명 일시의 함몰하여 이물의 썩어 짜니 무릅이리 지날적의 엇지 아니 창감후라”(〈연행가〉)고 밝히고 있으며, 영원성에 서는 “조가의 두 피루 청나라의 투항하니 붓그럽다 저 피루여”(〈연행가〉)라고 회고한다.

11) “병즈년 호란시의 효종대왕 입심후사 이 고기 너무실제 씨친곡조 유전후니 호풍도 참도찰스 구진비는 무삼일고” 〈연행가〉.

찌는 법 등 사는 모습을 접하며 짐작했던 대로 초라한 오랑캐의 모습임을 확인한다. 이와 같이 북경으로 향하는 변방에서의 여정은 노숙의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서글픔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며, 전체적으로 회고적 정조이다.

하지만 변방에서 북경에 가까워질수록 변화한 도시가 나타나면서 점차 그 규모와 외관의 화려함에 놀라움을 느낀다.¹²⁾ 봉황성, 요동성, 심양, 산해관, 통주를 거치면서 분주하고 활달한 도시의 기운을 호흡하며 작품의 정조는 활기차진다.¹³⁾ 그럼에도 아직 북경에 도착하기 전의 여정은 여전히 대의명분을 환기하는 역사적 자장 안에 머물러 있는 곳들이 많다.¹⁴⁾

다음 도정은 목적지인 ‘북경에 도착해서의 여정’으로서, 전체구성상 북경에 도착해서의 견문체험이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 이번 사행의 목적지이기도 하거니와 청조의 현재 모습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 때 북경에서의 공식적인 일정은 천자를 만나 표문을 전달하는 외교적 절차이며, 그 외에는 개인적으로 보내는 시간으로서 개인적인 관광과 그곳 문사와의 교유가 큰 몫을 차지한다.

기행의 목적지인 북경은 천자가 있는 황도(皇都)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곳으로, 천자의 위세와 함께 청나라 치세를 알아볼 수 있는 곳이다. 가사 작가들은 북경에서 자유롭게 북경 시내를 관광하면서 도시의 이모저모를 돌아본다. 이와 함께 북경에서의 견문 중 또 하나의 중심축은

12) “요동성 드러가니 봉황성 십비되고 아경의 비기건디 곳곳이 초견이니 연경의 드러가면 망양지탄 응당이라 말타고 지나가니 요지경 드러간지 좌우의 탈목호여 유리금은 조요하니”〈서행록〉·“요동성너 들어가니 굉장하고 변화하다”〈연행가〉.

13) 심양에 이르러서는 “물건이 풍비호여 업는기시 업다호네 십즈가 네거리의 이층집 스 문통이 거리거리 눕히잇겨 변화호고 웅위호다 오논스름 가논스름 거마가 미만호여 정신이 아득호여 향방을 모를네라”(〈연행가〉)라 하여 도시의 변화함에 정신이 아득해졌음을 말한다.

14) 예를 들어 통주는 강남과의 교통지로 이름난 곳으로서 강남지방의 활기를 환기하는 장소이다.

개인적인 유람과 함께 그곳 문사들과의 교류이다. 이 또한 공식적인 외교 절차에 의해서가 아닌 개인적이고 우연히 이루어지는 만남으로서, 이 때에는 그 곳 문사의 집을 방문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관심사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마지막으로 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회정은 비교적 간략하다. 왔던 길을 그대로 재차 밟아 돌아오는 것이므로 새롭게 부각된 사건이나 일화만을 간략히 소개하며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회,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한다.

결과적으로 작품 구성상 가장 큰 특징은 북경에서의 견문 확장으로, 이 점이 17세기 말 사행가사 작품들과의 차이점이다. 북학파들의 연행록이 18세기 중반 이후 가장 활발히 창작된 점과 달리, 가사의 경우 19세기에 이르러 북경 체험이 수용되고 많은 이본이 산출된 것으로 보아 이 때에 이르러서는 청국 북경에 대한 호기심이 한글독자층에게까지 번져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기행 체험 반영의 방식

1) 개인적 관심과 흥미추구의 태도

작품의 전체 구성은 시간적 흐름을 따라 공간적 이동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단 북경에 도착해서는 시간적 흐름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은 북경의 풍물을 바라보며 표출되는 작자의 감정적 추이를 따라가기보다는 볼거리의 재현에 충실한 결과이다. 북경 시내를 유람하며 구체적 계기 없이, 포착한 대상을 중심으로 장면의 전환과 연속이 이루어지는 병렬의 기법¹⁵⁾과 묘사한 대상을 세세히 묘사하여 재현하는

장면의 극대화의 기법¹⁶⁾이 구사된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구사된 병렬이나 장면화의 기법 등을 통해 불거리로서의 대상에 집중하면서 화자의 내성적 목소리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작가의 내성적인 목소리가 줄어드는 것은 공식적 일정에 따른 사절로서의 공적인 책무감이 크지 않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공식적 일정에 대해서는 간략히 소개를 할 뿐 주된 내용은 개인적인 관심사에 집중하여 느긋한 태도를 취한다. 일반수행원으로서 공식적 임무가 많지 않은 김지수의 작품인 <서행록>은 물론, 서장관 신분인 홍순학이 지은 <연행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예부에 나아가 표자문을 진정하는 의례만이 언급될 뿐 대부분 개인적인 이국견문으로 채워진다.¹⁷⁾

이점은 시간적 흐름을 따라가며 쓴 일기체 작품으로서 바로 전 시기인 18세기에 지어진 김인겸의 <일동장유가>(1764)와 비교할 때 대조적인 점이다. 역시 8,000여 구의 대 장편이었던 <일동장유가>는 국서전달이라는 목적을 지닌 공식적인 일정을 따라가면서 사신의 시각에서 일본국으로의 사행이 지나는 어려움을 그려낸다.

물론 <일동장유가>에서도 큰 틀로서의 공식적 일정과 교직되는 이면의 사적인 일상사에 관한 다채로운 일화들이 담겨 있다. 하지만 퇴석 김인겸의 기행체험을 마무리하는 최종 심급은 풍속과 정치, 제도, 학술, 예

15) 시간적 계기에 따른 순차적인 흐름에 얽매이기보다는 흥미로운 항목들을 나열, 병치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즉 각각의 장면들이 시간적 흐름 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흐름과 장소의 이동과정은 생략된 채 병치되어 구성되는 방식을 말한다. 유정선, 앞의 책, p.164.

16) 본래 판소리의 구성방식을 특정화한 개념으로 대상을 묘사한 대목이 전후의 흐름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돌출, 확장되는 현상을 말한다. 김대행, 『한국시가구조연구』, 삼영사, 1976, p.207.

17) “禮 畢 한후 돌아오니 사신 할일 다하였네 무엇으로 소견하랴 구경이나 가자세라” <연행가>

악, 문화 등 전 영역을 포괄한 일본국에 대한 평가였다. 거기에는 자신의 직임인 서기의 직분에서 오는 시작(詩作)에 대한 부담감과 자기검열의식이 작동하고 있다. 작품을 끝맺는 부분에서도 공식적 사행을 마무리하며 임금에게 사행을 보고하는 복명이 자리한다.

이에 비해 <서행록>과 <연행가>는 북경에 도착해서 외교적 절차보다는 개인적인 시선¹⁸⁾으로 북경을 자유롭게 바라본다. 이러한 시선에서 거대한 궁궐의 모습,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던 황제의 외모, 흥미로운 이국의 풍물들이 재현된다. 여기에 개입된 시선은 외교 상대국의 실정이나 동태, 정치적 상황을 투시하고 풍속의 속상미악을 살피려는 시선보다 이국의 풍물을 즐기려는 개인적 취미의 시선이다.

이와 같이 공식적인 사절의 시선보다는 유람객으로서 여유로이 밭길 달는 곳으로서 청나라의 풍물, 장시, 경관의 이모저모에 눈길을 보낸다. 그리하여 많은 비중을 두고 공들여 묘사하고 있는 것은 기이한 풍물, 물화가 쌓여 있는 장시, 천자의 궁궐 등 기이하고 이색적인 이국의 풍물들이다.

이를 보면 청국의 이색적 풍물들의 구성은 구경거리가 될 만한 흥미로운 풍물들을 좇고 있어, 장대한 경관뿐 아니라 우스꽝스럽고 기이한 대상들을 망라한다. ‘낙타’, ‘원숭이’, ‘코끼리’, ‘요술’, ‘서양인’의 외모 등 외양의 기이함으로 인한 볼거리들이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괴이하고 우슈어서 험마하면 요절할번”한 환희(幻戲)의 실연, “우습고 괴괴한” 만불사의 내부 모습 등의 우스운 광경들, “차세 타고 가셔보니 괴 또흔 구경”이 되는 구경거리에 대한 관심이다.

또한 민간풍속을 살필 수 있는 풍경으로는 동악묘, 도교 선원인 백운관, 불사인 만수사 등으로서, 이를 통해 민간 풍속이 포착된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풍속의 속상미악을 살피기보다는 불사나 선원의 내부 모습을 들여

18) 유정선, 앞의 책, p.137 및 p.142.

다분다. 이국의 이색적 볼거리들로서, 기기묘묘한 불상들이 조각되어 있는 만수사의 모습이나 대문의 신장(神將)과 염라국까지 재현된 동악묘의 모습, 도사들이 도경 공부하는 도교 선원 등은 모두 그 안을 궁금해 하는 호기심 어린 시선에 의해 포착된다.

이는 작품 창작의 동기와의 관련된다.

고상도 잊거니와 구경이 만하시니
 왕년의 지난 일과 도처의 노든 경과
 인물과 풍속이며 듣는 일 보는 거슬
 날마다 기록하야 넉넉히 적어시니
 우리 노친 심심 중의 파적이나 호오실가 <서행록>

위에서 보면 ‘우리 노친의 파적거리로서 지었다’는 언급이 나온다. ‘파적거리’라는 것은 겸양의 뜻을 표하는 관습적인 용례임을 감안하더라도 공식적 성격보다는 개인적 성격의 저작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연행가>의 경우, 누구를 위해 지었다는 별도의 언급은 없지만 그 가 연행 후 조정에 올린 공식적인 문건의 내용이 정세파악의 보고가 많다는 점¹⁹⁾을 고려하면 이 가사 작품 역시 개인적 견문기로서의 성격을 띤다.

2) 시각적 풍취를 통한 ‘대국’으로서의 표상

여정 속에서 마주한 청나라 건국 이전의 역사고적들은 대개 회고의 정감을 환기하는 정서적 긴장성을 지닌 전범으로 자리한다.

19) 홍순학이 연행을 마치고 나서 복명한 자료로서 ‘서장관홍순학수역현탁진문견별단(書狀官洪淳學首譯玄鑠進聞見別單)’을 살펴보면 청나라의 정세를 살피는 의미에서 농정상황과 정세, 황제의 근황, 그리고 청의 통치정책으로서 백성과 지도층인 사람을 위무하고 정표하는 정책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일성록』고종 3년 병인 8월.

슬푸다 문산스당 식시가 여긔런가
 소상과 비석화상 춤담히 안젧시니
 아이불사 흐온기절 천츨의 빗치난다 <서행록>

딕산각이 어디메내 넷일이 시고왜라
 갑신 삼월 십구일의 승정황데 순절티라
 셔리지회 그음업셔 다시곰 브라보니
 창오산 저문구름 지금의 유유희고
 상원의 누은버들 어느 썸 일어느리 <연행가>

위는 북경에 도착해서 아직 예전의 자취가 남아 있는 곳을 방문한 대목이다. 각각 충절의 고사로 이름난 송나라 때 문신 문천상(文天祥)의 사당과 명나라 승정황제가 순절한 곳을 방문하고 있는데, 쇠락하고 쓸쓸한 풍경이 이미 쇠망한 명에 대한 회억을 불러일으킨다. 이외에도 고사에 얽힌 고적들은 충절을 지키려다 스러져간 인물들과 같이 이미 사라진 것에 대한 덧없음과 비감함을 환기하는 경우가 많다.²⁰⁾

이와 같이 청 건국 이전의 역사고적들이 회고의 정취를 조성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현재 유통하고 있는 청나라의 이국적 풍속과 풍물은 주로 편집하게 시각적으로 재현된다. 청 건국 이전의 역사고적들이 감회를 불러일으키는 정신적 가치와 소통하고 있다면 이색적인 풍물들은 외형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묘사는 전범의 자장에 들지 않은 청국의 풍물과 문화를 이념이나 정서의 필터를 거치지 않고 온전히 시각화하는 방법이 된다.

20) 연교진에서는 “연나라 넷 저즈의 험스의 슈풀이라 형가의 슬픈소리 찬바람만나마잇고”(〈연행가〉)라 하여 연나라 때 뜻을 이루지 못한 험객 형가의 슬픈 고사를 떠올리며, 대자하에서는 “빗긴벚 찬바람의 천천흔 죠상흐셔”(〈연행가〉)라 하여 역시 연나라 태자의 고적에서 쓸쓸함을 느낀다.

부녀는 머리길너 뒤로 열거 족쳐두고
금은파란 주취화식 각식으로 꾸며시며
연지분의 밀기름과 머리우희 솟출 짓고
당녀는 발을 동혀 늪도록 못즈라니
지디여셔 셋는 모양 조막손 갖게고나 <서행록>

청국의 현실태라 할 수 있는 북경 성 안 내부의 모습도 시각적인 형상을 통해 감각적으로 재현된다. 북경을 구성하는 중심 풍경은 “대궐, 인가, 시전, 절간”이다. 천자의 존재 및 치세의 상징으로서의 궁궐과 인가, 북경의 풍물을 대표하는 시전, 풍속의 상징인 불사(佛寺)가 그것이다. 이들을 묘파하는 시각적 이미지들을 통해서 북경의 모습은 시각적 풍취를 지닌 감각적인 대상으로 재현된다.

녀염이 거려히고 시던이 웅부흐니
던집을 불죽시면 외모도 훌놓흐다
덧집의 보첩 달아 피루쳐로 세워시되
농트림 봉의형상 국식으로 식임흐야
모도다 도금흐고 금더즈 현판흐고
쥬홍기동 옥기동의 겹난간 유리벽과
금벽이 찰는흔디 양각등 두로걸고
문왁희는 홍괴디의 다엿길 방피로다
쥬석과 유납으로 병향쳐로 지어걸고
기도갓치 너털너털 각식모양 느러걸고
던마다 그러흐고 집집마다 황홀흐다 <서행록>

궁전이 몇 쏫인지 쳐쳐의 조첩흐여
아로삭인 장원이며 치식칠흔 바람벽과
벽돌 쌀아 길을 니고 박석 쌀아 쏫이로다

아로삭인 장원이며 치석칠흔 바람벽과
 벽돌 짚아 길을 니고 박석 짚아 뜰이로다
 울긋불긋 오색기와 스면의 녕농하니
 것흐로 열는보아 저러듯 휘황홀제
 안의 들어 즈세보면 오죽히 장홀호나 <연행가>

위는 각각 상점과 궁궐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으로, 금벽의 찬란함이나 울긋불긋한 오색기와의 영롱하고 휘황하게 반짝이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대국으로서의 배경은 불사나 궁궐의 규모가 ‘기절(奇絶)’하거나 ‘황홀’할 만큼 장대하며, 물화가 찬란하게 다양한 장시의 외형적 풍경이 그려진다.

특히 대국적 면모의 상징은 무엇보다도 천자와 천자의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궁궐로서, 이러한 궁궐은 천자의 위엄 및 그 치세를 짐작하게 하는 곳이다. 그에 따라 대궐은 매우 차근차근 살펴보는데, 웅장한 전체 궁궐의 크기를 비롯하여 주산을 배경으로 웅장하게 자리 잡은 모습, 황홀한 단청과 찬란한 채색기와가 얹혀 있는 외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어 내부 종묘사직 및 어전과 대조회가 열리는 드넓은 편전, 학궁과 태학의 배치와 외견을 살핀다.

티화던 볼죽시면 옥계가 숨춤인디
 한층이 길반되게 셉삭여 무어두고
 덩노의 노흔 돌이 크기도 당혹도다
 너비는 간반이요 기러는 숨간 되게
 아흠 농 도도 삭여 원장들을 걸쳐 노코 <서행록>

디궐을 살펴보니 그도 쏘흔 안팎궁장
 벽돌 빠하 황기와이며 쥬히는 삼십니라

디청문 들어서면 천안문이 마조잇서
 다숫홍예 두렷히고 이층문누 굉장호여
 그입희 금천교는 다숫다리 느려노혀
 다리마다 옥난간이 간간이 격호엿고
 좌우의 돌기둥은 경천쥬 한쌍이니
 십여 장 높혔는디 용트림 기절하다 <연행가>

전체적으로 정제되고 구획된 설계로 이루어졌으면서도 성대하고 웅성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대궐은 누런 기와를 올려놓았고 천안문에는 다리마다 옥난간을 놓은 모습, 좌우의 돌기둥에는 용 트림을 기절하게 새겨 놓은 모습, 어전인 태화전은 옥의 계단이 삼층에다가 가운데 길에 놓인 돌에 역시 아홉마리 용을 양각으로 새겨 놓은 모습 등 무엇보다 시각적으로 압도한다.

새김과 질감까지 세밀하게 묘사하여 부조해 낸 궁궐은 천자의 위엄에 대응된다. 이러한 시각적 외형은 천자의 행차를 목도하고 방대한 위의를 실감하면서 그 실질을 갖고 있다. 조회에서 법령의 삼엄함, 군졸의 방대함을 확인하고 천자의 위엄이 대단하며 역시 대국답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한 기이한 짐승, 요술 등 실제 모습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되는 풍물들을 있는 그대로 세밀히 묘사한다. 기기묘묘하면서도 우스운 대상의 자질구레한 속성들이 다양한 우리말 의태어들을 통해 시각적으로 재현된다.

혼상권의 드러가니 그모양 슈상하다
 길늬는 큰짐성이 다리는 별노굶고
 털업는 검은가죽 당치런 잇기갓고
 두귀는 드리워서 가지입 갓튼거시
 크기는 소반갓고 살져서 듯거우니

스름이 울너타려 귀를잡고 다로히면
무릅을 추혀드러 드디게 하여주고
방아고가 가튼엄니 빵으로 버드러져서
넙슈얼 겸흔 코가 닛스이로 들늑늘늑
<서행록>

‘가지입’ ‘소반’ ‘버드러져서’ 등 일상어들을 통해 그 모습이 아주 께진하게 묘사되는 것이다.

한편 위로 천자와 천자의 궁궐에 대응하여 장시의 풍경은 문물의 번성함을 보여준다. 장시에 진열된 물화의 화려함은 당시 북경의 가장 대표적 풍물로서 사행인들에게 가장 인기를 끈 장소이다. 당시 장시의 대표 격인 융복사와 유리창 유람 부분에서는 종류별로 물화들을 번쇄한 나열을 통해서 일일이 제시한다.

누리창의 드러가니 멀리보는 철니경과
만호슈정 양목경은 디모양각 테를하고
마조보기 소년경은 슈석빅철 테을하고
지관보는 건량구며 면경테경 오갑경과
시마초는 즈명종과 그림그린 누리병풍
빅옥등잔 누리등과 옥미회의 금늑뷔며
각식술병 술잔들과 어항슈적 도뉴리라
온갓보퓌 문방계구 도서필통 벼로필목
진옥밀화 석우황의 적계삭인 신선부처
괴석필산 청강석과 천도연적 옥촛디며
디즈쓰는 종녀붓과 세히쓰는 초호필과
양호상호 회호슈필 주먹갓튼 체모필과
황모토토 마모필과 쥐늑로시 기털붓과 <연행가>

각양각색의 물화들이 진열된 모습은 화려하면서도 다채롭게 나열된다. 작가의 렌즈는 그 많은 물화들을, 변쇄한 나열을 통해 하나의 장면으로 포착함으로써 천하의 진기한 온갖 것들을 구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천하보배들, 천리경이나 자명종 같은 진기한 물건들, 문방제구들을 비롯하여 재질과 질감, 양감, 장식, 무늬 등 특징과 함께 열거된 물건들을 따라가는 시선은 휘황함 그대로로서 눈으로 보는 즐거움이 가득하다. 여기서 지리할 정도로 일일이 그 달임과 누빔, 테두리, 새김의 양각까지 묘사하는 것은 당대의 유행소들을 감각적으로 재현하는 것으로서, 청 물화의 흥성에 대한 실감이 묻어 있다.

말뚝 굽는 아희들은 슴티 들고 쏘다이고
 소음 타는 큰 활 소리 짜랑짜랑 소리 나고
 통장군의 물장사는 쪽지계의 지격비적,
 동츠 모는 거름장스 빔각시적 모라가고
 디츠소츠 노시말은 목테두리 열두 방울
 이골 저골 모라갈제 외랑저렁 소리 느고
 머리ㄱ기 도부장스 쟁경동당 소리느고
 멜목관의 방울장스 빔랑빔랑 흔들면서
 여긔저긔 다갈 박가 마칫소리 두루 나고
 - - - -
 원앙소리 칫소리며 노소남녀 뉴걸들은
 향불 하나 들고 소년 달느 비는 소리 <서행록>

“외랑저렁, 쟁경동당, 빔랑빔랑, 짜랑짜랑” 등 다양한 의성어들이 반복되며 빚어내는 리듬감은 바쁘게 돌아가는 시정의 생기 찬 활력을 느끼게 한다. 물장사, 거름장사, 방울 장사, 걸인에 이르기까지 온갖 소리로 형상화

되는 장시의 떠들썩한 정경은 “여염의 속상” 그대로로서 활기에 차있다.

이런 점에서 시각적 풍취를 통해서 재현된 배경은 화려한 도시의 일상적 외형이다. 이국의 대도시답게 진기하고 이색적인 풍물들이 쌓여 있는 도회의 분위기 속에서 위로 왕으로부터 아래로는 여염의 민간에 이르기까지 번성한 대국의 표상을 담고 있다.

4. 청을 향한 이중적 시선

1) 일상문화의 활력과 대국의 중력

사행가사 작가들에게 비취진 청국의 외형적 모습은 풍요롭고 눈부신 것이었다. 배경은 중원을 차지한 대국으로서의 모습을 체감한 곳이 된다. 천자의 위의를 그대로 보여주는 궁궐의 장대함과 풍부한 물화들이 진열된 장시, 성대한 불사들을 바라보며 번성한 대국의 활력을 느낀다. 그 팽팽한 활력은 확장된 장면들의 병치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재현되고 있다. 청국의 휘황함을 묘파하는 시각적·청각적 이미지들, 질감과 양감을 그대로 살려낸 번쇄한 열거는 성대함과 화려함을 지시하는 기호들로 작동한다.

그런데 이러한 청국이 갖는 대국의 표상은 무엇보다도 천자의 존재로 대표된다. 중원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천자와의 조우는 자연스럽게 대국의 무게감을 체감하는 것이다. 그것은 광대한 영토나 거대한 불상과 같이 규모와 크기에 압도되면서 느끼는 위압감과 통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소국인 우리나라와 대응되는 대국으로 의식된다.

특히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상 깊게 본 정경 중의 하나는 장시의 변화함으로서, 물질적 변화함의 상은 작가의 렌즈에 촘촘히 박힌다. 이 때 물화의 풍경으로 기억되는 변화함은 현재 유동하는 일상문화의 성격을 띠

면서도 청의 풍경을 가장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요소가 된다. 청의 물화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크게 유행하는 것으로서, 시각적으로 재현된 풍물들은 주로 일상의 문화를 구성하는 것들이다. 이로 인해 청국 문사들과 교류하는 현장에서도 대화의 내용 못지않게 가옥 경영과 음식의 종류에 대해 상세히 살핀다. 감미로운 술과 아담한 음식이 어우러진 자리의 운치는 ‘아름답고 맑은 취미’로 표현된다.

그런데 이러한 물화의 번성함은 종종 사행 사절들에게 민생과는 거리가 먼, 실속이 없는 사치와 부화함으로 받아들여지곤 했다.²¹⁾ 이와 같이 쓸모없고 사치스러운 물건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견지했던 일부와 달리, 이들 가사작품에서는 장시의 화려한 물화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는 장시의 장면이 장황하게 확장되어 있는 점과 관련된다.

이 때 시각적 풍취를 통해 재현된 북경의 모습은 외교 상대국의 문화적 심급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일상적 문화에 대한 개인적 취향의 시선에서 구성된 것이다. 물론 유교 문화의 시각으로서 의관으로 대변되는 ‘예의’의 측면에서 청의 문화를 바라보기도 하여, 이에 대해 이질적이고 생경함을 느끼는가 하면 때때로 경시의 눈길을 보낸다. 여정 속에서 목격한 관혼상제의 풍속에 대해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이를 보고적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오랑캐 풍습의 기이함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발인굿을 비롯하여 상례와 장례, 상여의 외양과 관 치레에 이르기까지 관혼상제의 풍속들은 생경하고 이질적이다.²²⁾

21) “북경 안팎에는 몇 십만 호의 민가가 있는지. 궁궐이나 관청 사묘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시장 점포다. 각색 화물이 구름같이 쌓여 있지만 민생이 일용함에 없어서 안될 물건은 실로 열에 하나 둘일 뿐, 나머지는 모두가 노리개감으로 쓸데없는 물건들이다. 이것이 잘 팔려 이익이 남는 것을 보면 그들의 습속이 얼마나 사치한가를 알 만하다”. 김정선, 「유관록」, 『연원직지』, 국역『연행록선집』, 민족문화추진회, 1976, p.150.

따라서 가사에 나타난 대국의 표상은 다분히 청에 유동하는 일상적 소비문화의 측면에서 구축된 것으로서, 사절의 입장에서 투시한 문화적 심급에 대한 차원에서 구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물은 바로 장시에 화려하게 펼쳐짐으로써 청조의 흥성을 가시화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청국의 외형을 떠받치고 있는 요소 중 하나는 사회적 안정이다.²³⁾ 이 청국의 사회적인 안정이 이후의 작품인 <연행가>에서는 다소 퇴색되어 있다. 즉 서양국과의 싸움으로 북경의 명승지로 알려진 서산은 예전의 모습을 잃었을 만큼 광색이 쓸쓸한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것이 청국의 균열로 비쳐지는 것은 아니다.

2) 지식인들과의 교류와 정신적 연원의 확인

이들이 사행을 통해서 체감한 청국의 활력은 이번 사행길의 큰 즐거움이 된다. 청국의 풍속들에 대해 이질감을 느끼며 때때로 경시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번성함에 활력을 느낀다. 나아가 천자의 행차를 바라보며 대조회의 정제되고 기율의 엄격함²⁴⁾, 행세의 범절이 법도가 있음²⁵⁾을 느끼는 등 제도의 정밀함과 엄격한 규율에서 나름의 법

22) “의관도 창피하고 작인도 괴려하다 담비물고 거러안고 뒤집지기 버르시며 슈폴밋티 모혀서서 형인을 구경하니 귀신인가 독갑인가 우습고 고이하다” · “호인의 의스 도리 칩망키야 흐려마는 목소견과 상슬귀의 지려가 바히업다” · “무량옥은 무산 일고 외모가 슈통하다”(〈서행록〉)라고 발성하는가 하면, “집집이 호인들은 길의 나와 구경하니 의복기 괴려하여 처음보기 놀납도다”(〈연행가〉)라고 읊고 있다.

23) “앗가울스 디명풍속 간디업시 더저두고 즉금황데 몇몇디를 티평으로 누려가니 호운이 무빅년은 옛말도 못밋들이”(〈서행록〉).

24) “디조회 아니라도 평일의 그러하니 아국의 비기건디 관원이 빅비로다 - - - 이쳐로 만흔 군병 정제하고 조용하여 어두어서 아니빌 제 무인지경 갖튼지라 일노써 헤아리면 기늘이 금죽하다” 〈서행록〉 · “엄숙하고 정제하며 아모소리 못하게고 박석우히 말굽소리 저벽저벽 홀분이라 일노써 헤아리면 군률이 금직하다”(〈연행가〉).

도를 지니고 있다고 하여 우리나라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대부분 지금 청국에서 느낀 사회적 안정은 하은주(夏殷周) 삼대(三代)의 유제나 전래 유학의 정신적 연원에서 끌어올린 것으로 이해된다.²⁶⁾ 이들에게 지금 청국을 이끌어가는 동력은 학문을 권장하는 호학의 분위기에서 비롯된 것으로²⁷⁾, 그 때의 학문은 전통적으로 있어왔던 유제(遺制)의 전승에 가까운 것으로 여긴다.

특히 북경의 태학은 호학의 기풍과 함께 주자학 전통의 존속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이다. 전통적으로 태학의 대성전에는 공자의 신위를 모셔 놓았으며, 주나라 선왕이 만든 석고가 있는 유서 깊은 곳이다. 이들이 본 태학에는 여전히 공자와 문도들의 신위가 모셔져 있으며, 주나라 때 만든 석고가 유학의 경전들을 새긴 비석들과 함께 놓여 있는 것이다.²⁸⁾ 이를 통해 선대의 예악에 비해서 지금의 상황은 여전히 아쉬움을 남기지만, 존속하고 있는 삼대의 유제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²⁹⁾

25) “형세법절 짝기여서 마으락의 증즈 췌니 이런 일노 불지라도 아국보다 법이 있다” <서행록> · “도적놈중 죽일놈은 그처럼 즈바가니 이런일로 불지라도 법영이 엄결코 나” <연행가>.

26) 이는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이 가졌던 사고인 ‘청조의 번성이 본래 중국이 지니고 있었던 유제로부터 유래했다’는 중국원류설과 동계에 있다. 박성순, 『조선 후기의 서양 역법 수용과 道器分離論의 정립』, 『한국사상사학』 24집, 한국 사상사학회, 2005.

27) 태묘와 천자의 학궁에서 건륭제의 우문지치에 감탄하기도 하고 강희제가 문연각을 개설한 것 등을 확인하기도 한다.

28) “태학문의 석고 잇서 좌우의 열기로다 글즈를 불죽시면 고던이 괴이헌디 주선왕 맨 든거시 중간의 서실헌여 불의타 다거을고 잣바릇쳐 노하두고 문밭기 췌열기는 식로 만든 석고로다” <서행록> · “태학을 츠츄가서 디성전의 슝비호고 전니을 붕심헌니 불근위뢰 되셔노코 디성지경 공즈신위 금즈로 여뵈즈요 안증스밍 넷 성인은 동셔모 피섯스며” <연행가>

29) <서행록>의 발문에서도 “물화도 번성호고 기를도 당홀시고 상즈도성 여업까지 저의 속상(俗尙) 괴이호고 후어삼대(後於 三代) 송명(宋明)가지 유전고적(遺傳古蹟) 분명호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경에서 지식인들과의 만남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청의 물화가 쌓여 있는 장시의 성황, 웅장한 궁궐의 위에서 중원 지배를 지속해 나가는 저력을 실감하면서도, 가사 작가들에게 그것만으로는 연행의 의의를 완성하지 못한다. 즉 그곳 지식인들과의 만남은 정신적 소통으로서 연행에서 빛나는 부분으로, 지식인으로서의 내성적 목소리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다른 견문체험에 비해 교유 부분에서는 내적인 목소리가 부각된다. 북경에서의 견문이 도시의 시각적 풍취에 대한 스케치에 가깝다면 청국 문사들과의 교유는 정신적인 교감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사행가사 작가들의 의식을 특징적으로 보여준다.

교유했던 문사들을 살펴보면 비공식적이고 우연적인 만남인 만큼 청국 조정에서 실세를 이루는 유력자들이 아니라 막 과거에 급제한 신분이나 지방의 관리, 과거 공부 중인 태학생 등이며, 크게 영달한 인물들이 아니다.³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유 지식인들이 청인 문사들이 아니라 ‘한족인 강개지사’·‘대명거족 후손’이라는 점이다. 이들에게는 교유인물이 한인(漢人)인지 아니면 만인(滿人)인지가 주요한 요건이 되며, 한족 선비만이 진정한 문사라고 강조한다.

그렇기에 작품 속에서 그 곳 문인과 교유하는 상황은 운치 있으면서도 회고적인 분위기이다.

기안은 발월호고 의리는 정밀하며
강지호고 걸오호여 춘츄가 습엄흔디
분울흔 당한 기운 은영이 드러나니
저러흔 기늬즈가 앓가올사 절통하다

30) <서행록>과 <연행가>에서 보면 장심, 장제량, 진방해 등으로 이들의 신분은 지방의 현령이나 태학생 등이다.

하늬와 조흔 가세(家勢) 덩쥬(程朱)를 비호다가
일조 치발(薙髮)호고 좌임(左衽)의 셋겨시니 <서행록>

대명(大明) 적에 명문거족 후예로서
마지 못해 삭발하고 호인(胡人)에게 벼슬하나
의관의 수통(羞痛)함은 분한 마음 맺혔구나 <연행가>

오랑캐 나라인 청조에 대해 분을하고 안타까운 감정을 갖고 서로 교감하며, 스스로의 의관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다.

이는, 북학과 연행록의 가장 큰 특징이 청인 학자 문인들과의 교류³¹⁾이며 이것이 인식 전환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조적인 부분이다. 연행록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살펴본다면 18세기 말 북학과의 연행록에서는 청인 학자들과의 교류가 두드러진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사행가사 작가들의 대외관은 상대적으로 보수적 의식에 견인되어 있다. 당대 청조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고증학이라는 독자적인 학문에 대해 의식하지 않았으며, ‘의관’으로 상징되는 문화적 자부심을 통해서 주자학의 여전한 우월성을 확인받고 싶어한다. 그렇기에 한족 문사와의 교류는 앞서의 견문체험과 비교할 때 정신적인 소통을 의미하며, 이들이 서로 교감할 수 있었던 공통분모는 정신적 연원의 공유라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서울의 일상문화를 구성하는 청조 문물에 대한 친화적 태도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유학의 연원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이 점에서 도시의 시각적 풍취에 대한 친화감은 청국 문화의 근간이 되는 학문의 영역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31) 김현미, 「18세기 연행록의 전개와 특성 연구」, 이대 박사학위 논문, 2003, p.47.

5. 19세기 중국 사행가사의 성격과 그 의의

19세기 중국 사행가사는 이전 17세기 중국 사행가사에 비해 청의 견문 체험을 충실하게 재현한다. 17세기 중국 사행가사들을 보면, 북경에 이르기까지의 도정이 확대되고 정작 북경에 도착해서의 견문은 간략하게 축소된다. 그 결과 작품 전체적으로 역사고적지의 비감함을 환기하는 회고 가 지배적이며 단형에 머문다. 이에 비해 19세기 중국 사행가사에서는 북경에서의 견문에 무게중심이 놓이면서 흥미로운 구경거리와 볼거리들을 시각적으로 재현한다. 이를 보면 이 시기에 이르러 오랑캐 나라로의 사행이 갖는 반감이나 긴장감이 이완된 것을 볼 수 있다. 17세기 중국 사행가사에서는 사뭇 긴장된 분위기가 깔려 있었던 반면에, 19세기 가사에서는 목적지인 북경에 도착하여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거의 대부분 개인적인 유람의 일정으로 채워지며, 사절로서의 부담감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19세기 초반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한글 독자층에게도 청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 있었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19세기 중국 사행가사의 통시적 흐름에서 점차 이본이 많아지고 있고, 흥미로운 부분들을 중심으로 후대의 작품에 확장 계승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곧 19세기 초반 작품인 <서행록>의 경우 이본이 아직 보고되지 않은 것과 달리, 홍순학의 <연행가>에 이르면 현재 전하는 이본의 수가 10여 종에 이를 정도³²⁾로 크게 인기를 끌었다. 또한 <연행가>에서 가장 큰 관심사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장시의 물화가 진열된 광경으로서, 이 부분은 <서행록>에 비해 더욱 확대되어 있다. 당시 장시를 비롯한 청의 문물이 큰 관심을 끌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일반적인 관심사들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임기중, 위 책, 2001, p.25.

당시 19세기 조선에서는 청조 문물에 대한 무조건적인 경도의 태도가 있는가 하면, 오랑캐 나라에 대한 뿌리 깊은 배척의 태도가 공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³³⁾ 이 점에 비추어 보면, 사행가사의 경우 무조건적인 배척의 태도와는 거리가 있으며, 청국 문물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또한 이 때에 이르러서는 청 문물은 크게 유행하고 있었다. 당시 청으로부터 수입품은 비단 모자 등 주로 일용잡화 내지 사치품에 집중되어 있었다.³⁴⁾ 이와 같이 실제로 청국의 물화가 본국에서 널리 유행하고 있었으며, 이는 경화사대부가 일상생활에서 추구하는 세련성과 관련이 깊다. 즉 가사에 투영된 물화에 대한 관심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유행소들이었던 청국 물화에 대한 관심이 투영된 것이라고 본다.

이와 같이 물화에 대한 관심이 일상문화 층위의 소비문화적 성격을 띠는 점에서 18세기 이래로 이어지는 북학파의 이용후생학적 관점이나 청조 고증학적 박학풍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거시적 관점에서 청국에 대한 시각은 전통적 인식을 유지한다. 이것은 그곳 지식인들과의 교류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다. 주자학의 본고장에서 한족 문사들과의 정신적 소통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이것은 연행의 자부심으로 자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식적 특징은 작자층의 성격과 관련된다. 김지수와 홍순학은 모두 중앙관료층 및 그 주변 인물이면서 경화사대부들로서, 이 시기 청조

33) 당대 문인이자 중앙관료인 홍석주가 중국에 가는 자들이 중국의 화려함에 현혹되어 버린다고 비판한 것이나 김조순이 청으로의 연행을 꺼리거나 구경거리로 생각하는 경향을 지적한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노대환, 「19세기 전반 지식인의 대청 위기 인식과 북학론」, 『한국학보』 76, 일지사, 1994, p.40. 북학파가 일시 침체기를 겪은 후 19세기 중반 이후 이어지고 있는 한편, 북벌파의 전통을 이은 존주파의 세력도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김동석, 「유언호의 <연행록>과 조환의 <연행일기>에 대한 고찰」, 『대동문화연구』 56집, 성대 대동문화연구원, 2006, p.196.

34) 노대환, 위의 논문, p.38.

와의 학문 교류에 열심이었던 북학파의 흐름과는 거리가 있다. 이들 북학파의 연행은 1801년 연행을 끝으로 단절되었으며 일시적 침체기를 거치고 있으며, 대개 김정희 이후 중인들에 의하여 그 정신이 계승되었다.³⁵⁾

이들은 경화사대부로서 18세기 이래 서울을 중심으로 창조 문물이 유행했던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다. 19세기 사행가사는 중앙관료층과 그 주변인으로 구성된 경화사대부의 관심사를 반영한다고 하겠다. 사행가사 작가들이 전통 주자학에 대한 신념 속에서 청국에서 확인한 것은 ‘도학의 유제를 근간으로 하여 왕정(王政)을 정점으로 한 물질적 번영’이라는 현실태였다. 이러한 현실인식은 당시 대부분의 중앙관료층이 지녔던 인식과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³⁶⁾

6. 맺음말

본 연구는 19세기 중국 사행가사 <서행록>과 <연행가>를 대상으로, 19세기 연행의 시대적 맥락 속에서 가사에 나타난 기행체험의 의미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김지수의 <서행록>과 홍순학의 <연행가>는 이 시기 가장 인기를 끈 계열의 작품들로서 이들 작품들을 통해서 19세기 중국 사행가사의 보편적인 기행의식을 고찰하였다.

35) “북학파는 아편전쟁을 전후해서는 뚜렷하게 학연이 나타나지 않는다. 대개 김정희 이후 중인들에 의하여 그 정신이 계승된 면이 있다. 북학파의 연행은 1801년을 끝으로 단절되었고 일시적인 침체기를 겪은 뒤 1861년 박규수의 사행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김동석, 위 논문, p.196.

36) 이는 1832년 서장관으로 연행한 김경선의 현실인식과도 일치한다. 이 시기 청조는 재정적 곤란과 사회문제로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었음에도 김경선은 여전히 부유하고 안정된 중화제국으로 이해하고 있다. 정혜중, 「19세기 초 조선 사행 김경선의 북경체험과 외국정보 이해」, 『중국사연구』 37집, 2005, p.166.

이들 작품들은 장편화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작품 길이의 확대를 추동한 요인은 이 시기 청국의 도시문화에 대한 관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이전에는 가사에서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북경의 견문을 충실하게 재현한 결과 장편화 한다.

중심 여정이 되는 북경에서의 견문은 공적인 직임이 갖는 임무수행의 책무감에서 자유로워진 대신 개인적 취향의 시선에서 일반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흥미로운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읊고 있다. 그 결과 북경의 장대한 경관과 이색적인 풍물, 진기한 볼거리들을 시각적으로 재현하면서 도시의 일상문화를 이루는 화려한 시각적 풍취를 그려낸다. 이는 성대함과 화려함을 지시하는 대국의 표상으로서, 천자의 위와 치세의 안정성을 상징하는 궁궐과 성대한 장시의 풍경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가사에 나타난 대국의 표상은 청에 유동하는 일상적 소비문화의 측면에서 구축된 것으로서, 문화적 심급의 차원에서 구축된 것은 아니다.

저자들인 김지수, 홍순학은 모두 중앙관료층 및 그 주변 인물이면서 경화사대부들이다. 이들은 경화사대부로서 18세기 이래 서울을 중심으로 청조 문물이 유행하던 당시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다. 이들에게 청국은 중원의 실질적 지배자라는 저력으로 다가오며, 그 문물에 대해서는 일상문화의 층위에서 친화감을 갖는다.

하지만 이 친화감의 바탕에는 전통적인 유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놓여 있다. 청국에서 느낀 물질적 번성은 전래 유학의 정신적 연원에서 끌어올린 것으로 이해된다. 그곳 중국 지식인들과의 교류에서도 만인이 아닌 한인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따라서 이들에게 연행은 청조 문물의 흥성에 대해 실감하게 된 계기이면서도 이것은 청나라 학문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19세기 사행가사 작가들이 중국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주자

학의 연원을 근간으로 하여 왕정(王政)을 정점으로 한 물질적 번영'이라는 현실이었다. 이러한 19세기 사행가사의 성격은 이후 20세기를 나름의 방법으로 돌파하고자 했던 기행가사의 향방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경선, 『연원직지』, 국역 『연행록선집』, 10권, 민족문화추진회, 1976, pp.1-495.
- 김대행, 『한국시가구조연구』, 삼영사, 1976, pp.1-254.
- 김동석, 「유언호의 <연행록>과 조환의 <연행일기>에 대한 고찰」, 『대동문화연구』 56집, 성대 대동문화연구원, 2006, pp.175-208.
- 김풍기, 「<연행가>의 교육적 讀法」, 『국어교육학 연구』 12, 국어교육학회, 2001, pp.213-236.
- 김현미, 「18세기 연행록의 전개와 특성 연구」, 이대 박사학위 논문, 2003, pp.1-213.
- 노대환, 「19세기 전반 지식인의 대청 위기인식과 북학론」, 『한국학보』 76, 일지사, 1994, pp.126-167.
- 박성순, 「조선 후기의 서양 역법 수용과 道器分離論의 정립」, 『한국사상사학』 24집, 한국 사상사학회, 2005, pp.137-168.
- 유정선, 『18, 19세기 기행가사 연구』, 역락, 2007, pp.1-310.
- 임기중 편, 『역대가사문학전집』 40권, 아세아문화사, 1998, pp.1-698.
- 임기중, 『연행가사 연구』, 아세아 문화사, 2001, pp.1-462.
- 정혜중, 「19세기 초 조선 사행 김경선의 북경체험과 외국정보 이해」, 『중국사연구』 37집, 2005, pp.141-170.
- 조규익, 「사행가사의 해외체험과 세계관: <일동장유가>와 <병인연행가>」, 『국문 사행록의 미학』, 역락, 2004, pp.203-240.

ABSTRACT

The travel experience and exotic taste in *yeonbang gasa* in the 19th century : Focusing on <*Seohaengrok*> and <*Yeonhaengga*>

Yu, Jeong-Sun

This research, which is about *Yeonhaeng gasa* named <*Seohaengrok*> and <*Yeonhaengga*> of 19th century, intended to examine the meanings of travel experience of *Gasa* in accordance with situation in the *Yeonhaeng* era of 19th century. <*Seohaengrok*> by Kin Jisoo and <*Yeonhaengga*> by Hong Soonhak were among the most popular works in this period, and through these works the research investigated the general travel consciousness in *Yeonhaeng gasa* of 19th century.

An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 of the two works is that the experience of Peking is being extended, lengthening the amount of works. They handled everyday experiences. In Travel-*Gasa* strangers with grotesque appearances as well as curious, exotic things represented the Peking.

Korean literati in general stuck to the Confucianism. They maintained the obstinate view that royal government solidly found upon Confucianism of Chu Hsi persuasion would ensure the prosperity of the nation.

Key Words Travel-*Gasa*, 19th century, Confucianism, exotic phenomena

논문투고일 : 2008. 3. 30
심사완료일 : 2008. 4. 20
게재확정일 : 2008. 5. 4